



불통의 시대는 갔다... 파업이후 달라진 연합뉴스 소통 문화

※ 연합뉴스 조합원이라면 이번 파업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로 '소통'을 주저 없이 꼽을 것이다.

명색이 언론사이지만 그동안 '언로(言路)'가 막혀있었다는 게 연합뉴스의 불편한 진실이었다. 특히권위주의적인 박정찬 사장 체제에서 '불통(不通)'은 한층 악화됐다. 이번 파업의 기치 중 하나가 사내 소통과 민주화란 점은 조합원들이 불통에서 오는 속앓이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파업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본사 8층에서 열린 총회나 모임에서 조합원들은 박 사장 체제에서 겪었던 저마다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처지가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됐다. 부서 칸막이에서 오는 오해와 불신이 눈 녹듯 사라졌다.

타부서간, 선후배간 대화의 시간이 많아지면서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게 됐다. 연합뉴스 바로 세우기라는 일념으로 넉달째 월급도 받지 못한 채 파업 대오를 유지하면서 '하나됨'을 느끼기도 했다.

노보팀은 이같이 파업 이후 달라진 연합뉴스의 소통문화를 짚어봤다. 파업이 연합뉴스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서다.

조합원들간 소통의 가장 큰 도구는 '카카오톡'이다. 파업 초창기부터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이 조합원들이 원활히 의사소통하도록 돕는 '창구'가 되고 있다.

부서별로 혹은 입사연도별로 10~30명의 조합원들이 카카오톡을 통해 24시간내내 연결돼있다.

카카오톡에선 공병설 노조위원장의 집회 발언이나 노조 프로그램, 게시판에 올라온 글, 시사각각 변하는 상황 등을 공유하거나 회식날짜를 잡는 등 많은 일이 이뤄진다.

공론화할 필요는 못 느끼거나 다소 사적인 이야기까지 가볍게 나눌 수 있어 회사 및 노조 게시판에서보다 의견개진이 자유롭다는 강점도 있다.

평소 근무할 때 각 출입처에 나가있느라 부서전체가 대화할 일이 거의 없고 필요할 때 1대 1 메신저로 대화하던 것과 비교하면 두 자릿수의 인원이 온종일 집단채팅을 하는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다.

카카오톡은 정의대책위원회·대의원 연석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즉석에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대의원들이 수첩에 기록하고서 조합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내는 것이 이전 방식이었다면, 이젠 회의내용을 스마트폰으로 받아친 뒤 바로 카톡으로 전송하는 것이 '대세'로 자리 잡았다.

산업부 대의원인 임형섭 조합원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소통은 조합원들에게 상황을 전달하는 시간이 단축된다는 점 말고도 '그룹채팅방'을 개설, 일상을 공유하



면서 유대감을 끈끈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조합원은 "카카오톡 덕분에 많은 조합원들의 의견을 빠르게 모을 수 있어 카카오톡이 파업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 있고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며 "파업이 끝나더라도 카카오톡방을 적극 활용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파업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생긴 조합원들은 산과 강, 바다로 MT를 떠나 깊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평소 과중한 업무로 언감생심이었던 MT를 통해 조합원들은 서로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정치부 조합원들이 지난달 1박2일로 다녀온 강화도 여행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치부 조합원 10여명은 강화도 갯벌에서 조개를 캐고 족구를 하며 우의를 다졌다. 밤엔 오순도순 둘러앉아 공기놀이까지 했다고 한다. 상대적으로 엄격한 위계질서로 소통이 쉽지 않았던 정치부 문화가 이번 MT와 같은 경험을 통해 훨씬 유연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유미 조합원은 "냉정하고 무섭게만 느껴졌던 선배들에서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 너무 좋았다"며 "파업 이후 부서 분위기도 많이 달라질 것 같다"고 기대했다.

IT개발부 조합원들은 지난달 지리산을 오르며 팀워크를 다졌다. 노고단에 오르고 차가운 계곡물에 몸을 담그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숙소에서는 밤늦도록 이번 파업과 회사의 미래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한빛공원에 자리 잡은 '공정보도 텐트'가 사내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 좁은 공간에 2~3명 또는 5~6명이 모여 앉아 있노라면 파업을 주제로 비장하게 시작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수다가 된다.

산업부의 이세원 조합원은 "야간텐트를 지키면서 다른 부서 조합원들과 사내 불합리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똑같이 분노했다"며 "텐트에서 자주 접하지 못하는 사내 구성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텐트에선 파업 참여여부에 관계없이 선후배간의 정을

확인하는 장면도 자주 펼쳐진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업무에 복귀한 부장급 이상 선배들이 커피 등 먹을거리를 사 들고 와 텐트를 지키는 후배들을 격려하는 등 소통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시도가 여러차례 목격됐다.

교대 근무를 하는 부서의 경우 텐트는 단합의 장 역할을 한다. 근무가 6교대로 돌아가는 IT운영부의 이석규 조합원은 "일정이 안맞는 동료와는 회식때에나 얼굴을 봤었는데, 야간텐트 당번때는 여럿이 한자리에 모여 파업 이야기뿐 아니라 사적인 대화까지 나눴다"며 "집회에 잘 못 나오는 조합원들은 물론 부장들도 밤에 격려방문을 해줘서 다함께 소통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경제, 어학 등 파업 이후 꾸려진 스터디 모임도 소통창구가 되고 있다.

스터디 모임을 통해 지식을 쌓는 것은 물론, 평소 업무 현장에서 느낀 고민이나 현 파업 상황에 대한 의견 등을 공유하며 '인생 공부'도 하고 있다고 참여자들은 입을 모았다.

다양한 연차의 조합원들이 함께 하다보니 현 파업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도 더욱 다양한 시각에서 생각해볼 자리가 되기도 한다.

경제 스터디의 일원인 증권부 한지훈 조합원은 "갓 입사한 후배들은 선배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질문을 많이 해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선배는 그동안 현장에서 쌓은 지식과 경험을 전할 수 있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최근까지 프랑스어 스터디를 했던 사회부 김효정 조합원은 "스터디를 하며 동료 조합원들의 새로운 면을 많이 알게 됐고, 더 많이 친해질 수 있었다"면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빈번해진 부서별 회식과 번개모임도 사내소통의 감초다.

1년에 많아야 2차례 부서회식을 했던 사회부는 파업 초반부터 최근까지 거의 매주 월요일 저녁 회식을 했다. 매 회식에 조합원 10~20여명이 참석할 정도로 출석률이 높다.

파업 이전과 달리 회식 주최와 진행, 음식점 섭외 등을 평조합원이 한다. 소속팀, 연차 등은 모두 잊고 조합원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이전처럼 딱딱하게 폭탄주만 돌리기보다는 일상을 공유하고 편안한 이야기를 주로 나눈다.

산업부는 파업 시작후 지금까지 매주 한 차례 빠짐없이 회식을 했다. 매번 산업부 조합원 상당수인 10명 안팎이 참석해 파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집중투쟁기간엔 아침 출석률을 높이기 위해 3주동안 '오전 8시 커피숍 미팅'을 갖기도 했다.

이제 연합뉴스에서 불통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새로운 연합뉴스’ 기대감 커진다

“파업투쟁, 연합뉴스 위상 제고에 중요한 계기”

공병설 노조 위원장은 20일 노조의 파업으로 연합뉴스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측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일축했다. 오히려 이번 파업이 회사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 위원장은 이날 본사 7층 사장실 앞 집회에서 “사측은 파업 때문에 연합뉴스의 존재감이 약해진다는 주장을 퍼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오히려 언론계 안팎에서 파업 이후 달라질 연합뉴스에 대한 기대가 커

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공 위원장은 “작년까지만 해도 연합뉴스가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편향보도를 일삼는다는 이유로 국가 기간뉴스통신사 노릇을 제대로 못 한다는 비판이 강하게 일었다”면서 “하지만 파업 이후 그런 목소리보다는 향후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외부의 평가를 전했다.

공 위원장은 “이처럼 파업 투쟁은 전사적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른바 ‘박정찬 사장 활용론’의 비현실성도 지적했다. 박 사장 활용론은 노조가 파업을 접고 업무에 복귀한 뒤 공정정보도와 사내 민주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박사장을 상대로 따내야 한다고 일각에서 제기했던 주장이다.

공 위원장은 “협상 테이블에서 박 사장은 제도 개선 분야에서도 좀처럼 양보하지 않고 있다”며 “파업 중에도 박사장의 태도가 상황이 이런데 업무에 복귀해 박 사장을 ‘투명인간’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구성원들이 공정정보도와 사내 민주화를 이뤄낸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보름가량 계속되고 있는 협상이 머지않아 결론이 날 것”이라며 “인내심을 가지고 더 버티자”고 조합원들에게 당부했다.

〈어느 파업노동자의 일기〉 정치부 정아란 조합원



햇살이 얼굴에 내려오는게 느껴진다. 침대 아래쪽을 손으로 더듬어 휴대전화를 찾았다. 어이쿠. 8시를 넘겼다. 알람은 무용지물, 고통 없이 잠에서 깨워준다는 웨이크업 라이트인가 뭔가를 정말 사야 하는걸까. 아냐, 너무 비싸. 예

전엔 어떻게 일어나서 출근했지? 샤워하러 가는 중에 별의별 생각이 떠오른다. 어쨌거나 지각을 면치 못할 것이다. 본래 교문 앞에 사는 학생들이 제일 늦게 가는 법. 센터원 빌딩 동관 7층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조합원일 나의 아침은 이렇게 시작된다.

오늘도 청바지에 나의 ‘잇 티셔츠’를 입을까. 잠시 백팔번뇌에 빠졌으나 후줄근해진 노조 티셔츠는 세탁기로 보내기로 한다. 카카오톡 동기방을 열어 사장실앞 상황을 묻는다. 그분은 이미 들어갔단다. 동기 일부는 사장실 앞이고 일부는 나처럼 회사로 달음질하는 중이다.

동관 7층 엘리베이터가 열리는 순간 쏠리는 눈길들을 피해 복도 끝 자락에 자리를 잡았다. ‘무시무시한 마이크 당침을 피해서 참으로 행운이야’라고 문득 생각한다. 오늘은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는 롤링페이퍼를 쓴단다. 파업하면서 많은 선후배를 알게돼

참 귀한 인연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종이에 적힌 이름 중에는 누구인지 잘 떠오르지 않는 사람들도 여럿 있어 민망하다. 내 종이를 받아들고 보니 과분한 칭찬과 격려가 담겨 있다. 여러모로 본인들이 더 힘들 텐데 격려해주신 선배들이 고맙고 어리버리한 선배를 믿어주는 후배들이 예쁘다.

점심때엔 명동에서 ‘보급 투쟁’에 나섰다. 투쟁에 동참한 이는 함께 언론사 입사 준비를 했던 ‘왕언니’다. 정치부 있는 동안 혼자서 바쁜 척 다하면서 약속을 마다했던 내가 알미웠을 범도 한데, 파업한다고 하니 배를 굶지는 않는지 맛난 거 사주겠다고 챙겨주는 사람들이 눈물 나게 고맙다. 남산만한 배를 안고 나타나는 왕언니는 자신도 몸을 가누는 것이 힘들 텐데 열심히 하라고 기운을 북돋워 준다.

보급투쟁을 마친 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다. 동기인 연정·수정 ‘시스터즈’가 텐트 농성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주전부리를 사 들고 텐트로 향했다. 이미 그네들은 선배들이 사다준 팔빙수와 도넛을 펼쳐놓고 ‘폭식투쟁’을 벌이고 있었다. 빙수상을 물린 뒤에야 폭풍수다를 시작했다. 종반부에 접어든 파업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 어떻게 마무리 짓는 게 옳은 것인지 상황을 한없이 낙관했다가 한없이 비관하기도 한다. 속에 있는 이야기를 눈치 보지 않고 나눌 수 있는 동기들이 있어서 다행이다.

다시 총총걸음으로 동네카페로 향했다. 우리 동네에서 가장 커피가 괜찮은 집이라고들 한다. 타사 선배가 추천한 정치 관련 서적을 야심 차게 꺼내 들었

는데 자꾸 다른 생각들이 휘방을 놓는다. 평소 근무할 때는 책 읽을 시간이 없다고 징징댔었다. 막상 시간이 생겼지만 책은 옆구리에 끼고만 다닌 채 끝까지 읽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모든 것은 정말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생각을 한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출입처로 돌아가서 타자라도 제대로 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불안감에까지 이르렀다. 오늘도 책을 아주 조금 읽고는 덮었다.

푸성귀 위주로 차린 저녁을 먹곤 운동하러 나섰다.

지난 겨우내 급격하게 불어난 몸을 추스르기 위해 파업과 동시에 운동을 시작했다. 100일이 다 되다 보니 이제는 운동을 하루라도 거르면 찝찝할 정도가 됐다.

땀을 흘리는 쾌감도 좋고, 구박을 들으면서도 몸을 이리저리 늘리고 깡깡대는 동안에는 이런저런 불안감과 생각들을 깡그리 잊을 수 있다. 파업을 하면서 국가공인자격인 운전면허를 획득한 것 다음으로 잘했다고 자신을 칭찬해주고 싶은 것이 운동이다. 뽀뽀뽀 씻고 나서 카페에서 읽다가 만 책을 다시 펴들었다. 필시 삼십 분 안에 잠들 것이다. 오늘은 빨리 잠자리에 드니 내일은 지각하지 않으리라. 앗! 그리고 보니 내일은 집에서 각자 투쟁하는 자율투쟁 첫 날인 것을.

